

삼성항공, 헬기 동체 첫 수출

삼성항공이 세계적 헬기 제조업체인 미국 벨사에 3억달러 규모의 「SB427」 헬기 동체를 공급키로 하고 1호기를 선적했다고 지난 6월 16일 밝혔다.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삼성항공은 2013년까지 매달 5~6대씩 벨사 캐나다 공장에서 최종 조립될 「SB427」 헬기 740대의 동체를 공급하게 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헬기 한 기종의 동체 전체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품 설계에서 생산까지 일괄 수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항공동체 개발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427헬기는 지난 96년 삼성항공과 벨사가 공동 개발에 착수한 8인승 쌍발기로 97년 11월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비행중이다. 쌍발엔진을 장착해 안전성을 높인 이 헬기는 대당 가격이 220만달러로 주로 경찰 순찰·긴급 구조·화물수송용으로 사용된다.

IL-96T, 러시아 최초로 FAA 형식증명 취득

일류신 IL-96T 화물기가 러시아 민수용 항공기로는 최초로 미 FAA의 형식증명을 받고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 국제항공사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프랫 & 휘트니사의 PW2337 엔진과 록웰 콜린즈사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이 4발 광동체는 원래 계획보다 4개월 늦은 지난 6월 2일에 형식증명을 받았다.

이로서 IL-96T는 미국과 미국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IL-96T는 서방국가에서 운항하는 조건으로 미국 Exim은행의 용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인도는 미 FAA 형식증명 취득 이후로 연기되었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 펌 PS-90 엔진을 장착한 II-96-300 여객기의 동체 연장형으로서 II-96T 화물기와 300인승급 II-96M 여객

기형 등 두 가지 형이 제안되었다. II-96-300에서 개조된 II-96M은 지난 1992년 4월에 비행한 바 있다.

벨기에 ABX 로지스틱스, 해영해운항공 인수

세계 10대 물류회사인 벨기에의 ABX 로지스틱스가 국내 물류업계 20위권의 해영해운항공을 인수, 한국의 물류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김영진 해영해운항공 사장은 18일 "ABX 로지스틱스에 회사 지분 85%를 넘겨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영해운항공은 지난해부터 ABX 로지스틱스의 국내 대리점으로 영업해 왔다. ABX 로지스틱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영해운항공을 인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굴지의 물류업체가 한국 시장을 겨냥, 국내 회사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지금까



아에로플로트항공의 IL-96T

지는 일본의 물류업체들이 한국 제조업체들과 합작회사를 세우는 방식이 주류를 이뤄왔다.

ABX 로지스틱스는 벨기에의 철도회사인 SNCB의 자회사로 전 세계 25개국에 3백개의 지사와 1만1천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7억달러(약 1조9천억원)로 전세계 물류기업 중 10위, 유럽에선 5위에 올라있으며 물류와 항공운송 해운사업을 하고 있다.

영·독·불, 항공우주기술회사 설립 예정

독일의 DASA는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마트라, 영국의 GEC 마르코니와 공동으로 항공우주기술회사를 곧 설립할 것이라고 지난 7월 9일 발표했다. '에스트리움(ASTRUM)'이란 이름의 이 회사는 항공우주기술 공유에 대한 3사의 강한의지와 유럽 통합법인 설립의 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DASA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들 3사는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스파지오가 추후에 참여키로 하고 인공위성, 위성발사체, 기타 궤도선회 시설 등을 생산하는 매출 27억 유로 이상, 직원 1만1천명인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DASA는 그러나 이날 발표에

서 당분간은 자회사인 도니어의 활동 분야가 아닌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니어의 주주 96.7%가 지난 6일 열린 연례 회의에서 공동회사 설립에 동의했으나 도니어의 중역인 클라디우스 도니어가 유일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DASA는 "도니어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합을 연기함으로써 도니어와 그 직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어사, ERJ 시리즈 동체 연장형 개발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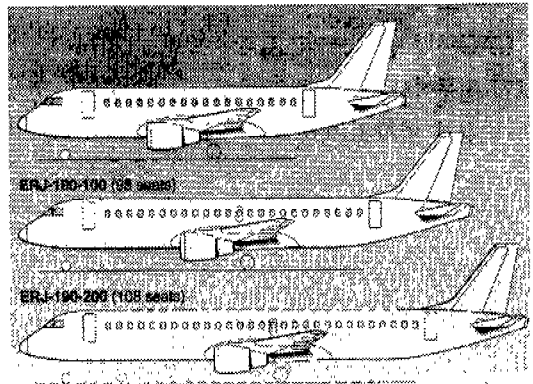
크로스에어사로부터 약 49억 달러 어치의 대량 발주를 받은 엠브레어사가 ERJ-170/190 지역 여객기 시리즈인 108인승급 동체 연장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크로스에어의 계약내용에는 30대의 70인승 ERJ-170과 보다 대형인 108인승급 ERJ-190-200 30대가 포함되어 있다.

ERJ-170의 최초 인도는 2002

년 12월이 될 것이며 ERJ-190-200 기체의 인도는 2004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엠브레어사는 새로 개발할 ERJ-170/190 계열 항공기의 엔진으로 제네럴 일렉트릭의 CF34-8E를 선택했는데 ERJ-170/190 용으로 보다 성능이 향상된 CF34-10 엔진과 다섯 개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하니웰사의 프티머스 에픽 에비오닉스 세트를 함께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엠브레어사는 내년까지 650대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250대 정도가 보다 대형인 ERJ-190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ERJ-170/190의 고객이



	ERJ-170(LR)	ERJ-190-100(LR)	ERJ-190-200(LR)
Length overall	28.6m	34.69m	37.33m
Wing span overall	25.8m	29.2m	29.2m
Height overall	9.12m	9.73m	9.73m
Powerplant	GE CF34-8E	GE CF34-8E-10	GE CF34-8E-10
Thrust (each)	14,000lb	18,000lb	18,000lb
Basic operating weight	18,650kg	25,200kg	26,100kg
Max fuel weight	9,600kg	13,000kg	13,000kg
Max payload	9,600kg	12,400kg	12,700kg
MTOW	33,990kg (35,990kg)	45,990kg (47,990kg)	45,990 (47,990kg)
Range	2,780km (4,075kg)	2,965km (4,260km)	2,965km (4,260km)

엠브레어 ERJ-170/190의 제원

된 크로스에어사는 향후의 잠재적인 고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00대 정도의 옵션발주를 고려하고 있다. ERJ-170기는 현재 운용중인 사브2000을 대체하고 이번 발주에 포함된 15대의 ERJ-145는 사브-340을 대체할 것이다. 또한 ERJ-145의 발주와 함께 옵션발주된 25대분에는 소형인 ERJ-135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항공업계 무인정찰기 공동 개발

최근 민영화된 아에로스파시알 마트라는 소형 무인 정찰기 개발을 위해 CAC 시스템과 제휴협상을 벌이고 있다.

CAC 시스템의 크리스토프 코르지 전무이사는 '한 주요 방위산업 그룹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최초의 유럽 무인 항

공기센터가 창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르지 전무이사는 협상 상대 회사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CAC는 이미 마트라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트라 BAe 다이너믹스(마트라 오토 테크놀로지)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사) 대변인도 CAC 시스템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라가르데르 그룹의 방산계열회사인 마트라 오토 테크놀로지는 부분 민영화된 거대 방위항공회사 설립을 위해 국영 아에로스파시알과 합병을 진행중이다.

벨 보잉사 4발 틸트로터기 연구

벨보잉은 대형 헬리콥터와 전술 수송기의 잠재적인 대체기로서 4발 프로프로터형의 틸트로터를 연구 중에 있다. 이 4발 틸트로터의 초

기개념은 현재 벨 보잉 V-22틸트로터의 날개, 엔진 및 프로프로터를 사용해 이를 록히드 마틴 C-130 수송기의 동체에 결합함으로써 앞으로 수년내에 4발 틸트로터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4발 틸트로터기는 총 수직이륙 중량이 V-22의 두 배에 달할 것이며 탑재가능한 페이로드 역시 V-22의 배가 넘는 4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4발 틸트로터기는 기존 V-22의 구성품을 사용함으로써 개발비와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며 V-22의 날개와 엔진 1쌍을 C-130 수송기 동체의 전방에, 그리고 다른 날개와 엔진 1쌍을 후방에 설치함으로써 C-130 수송기와 대등한 탑재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Fairchild 328JET, 유럽 인증획득

Fairchild Aerospace 328JET가 유럽항공국(EJAA)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곧 미국의 FAA인증도 획득할 예정이다. 4개월간 지연됐던 인증은 제동 시스템과 충격 흡수기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5대의 328JET기의 첫 인도는 밀워키에 연고를 두고 있는 Midwest Express사가 될 예



아에로스파시알 마트라사에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무인기 헤론

정이다. 동 항공사는 10월 이전에 항로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회사로서 첫 번째 고객은 이탈리아의 신흥 회사인 Gandalf Airlines인데, 9월에 12대 중 2대를 인도할 계획이다.

Fairchild의 운항국장인 John Wolf는 미국의 한 지역 항공사와 110대까지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거래는 25대의 328JET와 30대의 428JET기의 확정발주는 물론이고, 추가 옵션도 55대라고 밝혔다.

미쯔비시 중공업, 일본 방위 산업 중 영업실적 1위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 1998년도 일본 방위산업분야에서 매출실적 1위를 기록했다. 미쯔비시 중공업의 총 계약실적 27억 7천만 달러는 F-2 지원전투기, 전

차, 시콜스키 SH-60J 헬리콥터 면허 생산, 레이디언 패트리엇 미사일 사업 등으로 인한 것이다. 2위를 차지한 미쯔비시 전자는 AIM-7M 공대공 미사일,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및 레이더 개발 사업 등으로 8억 5천 9백만 달러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 상위 5위까지의 방산업체는 매출실적 7억2천8백만 달러의 가와사키 중공업, 5억3천 7백만 달러의 이시가와지마하리마 중공업, 그리고 3억7천2백만 달러의 NEC등이다.

IPTN, 분사 단행예정

인도네시아의 IPTN은 사업 재조정의 일환으로 회전익, 방위 및 우주 시스템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할 방침이다. IPTN의 부회장인 Ilham Habibie에 의하면 회

전익, 방위 및 우주 시스템 산업 분야에서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IPTN고정의 사업부문의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Habibie는 IPTN은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회사를 사유화하라는 정부로부터 이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사유화의 시기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에 달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IPTN은 이미 2년 동안 총 종업원의 1/3인 5,200명을 해고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동사는 N250 터보프롭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다.

에어버스 및 보잉사, 대형 비즈니스기에 관심

에어버스와 보잉사는 현재 각사에서 생산중인 기존의 여객기보다는 항속거리가 짧고 탑승능력이 큰 비즈니스 제트기의 사업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보잉사는 737-800 여객기를 기본으로 -700 동체에 -800의 날개를 결합한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4분기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319 비즈니스 제트기의 비행시험에 들어간 에어버스는 A321-200 여객기를 이용해 비즈니스 제트기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면허생산하고 있는 SH-60J